

화강암 화강암의 수직절리

1. 화강암의 수직절리

서울 한복판을 관통하는 한강의 북쪽에 북한산이 있다면 남쪽에는 관악산이 있다. 관악산은 북한산과 마찬가지로 산 전체가 꽃 같은 돌들이 불타는 듯한 형국이어서 풍수지리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화산(火山)으로 통한다.

관악산을 꼭 메운 바위 덩어리들은 모두 북한산과 같은 시기에 관입한 서울화강암의 일종이다. 관악산은 그 형세와 규모가 설악산과 북한산에는 못 미치지만 기암괴석과 아기자기한 암릉들이 소나무와 어울리며 능선으로 이어져 아름다운 산세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관악산의 최고봉인 연주대(629m)는 매우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어 바라보는 이의 발걸음을 절로 멈추게 한다. 마치 불타는 듯한 모양이라 불꽃바위라고 불리는 이곳의 암봉들은 예리한 칼날을 겹겹이 세워 놓은 것처럼 나란히 서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이루고 있다.

어떻게 이런 바위가 생긴 것일까? 화강암은 관입 이후 그 위를 덮고 있던 지표 물질이 침식과 풍화로 모두 깎여나가면 지표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때 화강암에는 수많은 절리가 발달하는데, 특히 수직 방향의 절리가 발달하면 그 절리면을 따라 침식과 풍화가 뚜렷하게 진행된다. 관악산의 연주봉은 이런 수직절리에 따른 침식과

풍화로 만들어진 조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수직절리에 의해 형성된 기암은 금강산의 만물상을 비롯하여 설악산의 공룡능선, 용아장성능선, 천관산능선 등에서 볼 수 있다.